

오스만 터키와 동부 지중해의 해상교역

이 희 수 *
Lee, Hee-Soo

The Maritime Trade in Eastern Mediterranean of the Ottoman Empire

The East Mediterranean has been the Islamic sea since the 7th century. The Arabs were predominant in the sea from the 8th century, and replaced by Turks from the 15th century when the Ottoman Empire conquered Constantinople of the Byzantine. The East Mediterranean prosperity in the Islamic period was mainly based on two pillars; the sea has been functioned as an important route to Mecca for annual pilgrimage on one hand, the vital route of supplying agricultural grain from Egypt to Istanbul on the other hand.

The Preveza War in 1538 in which the Ottoman fleet commanded by admiral Barbarosa defeated combined European fleet became a turning point for the absolute supremacy over the East Mediterranean by the Ottoman Empire. With the Ottoman presence, the East Mediterranean became the most dynamic cultural melting pot where all the commercial items, technology, new ideas and arts from the orient, western Europe and Arab world flowed into. In particular, the East Mediterranean has significant position to connect the maritime

* 한양대학교 문화 인류학과 교수

routes to the Great Oasis Silk Road, by which human society enabled to initiated new sense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Main commercial articles from East Mediterranean to the rest world were as follows: incense(francincense), sugar, citron, orange, coffee, carpet, textile(muslin, gauze, mohair, taffeta, damask), silk, slave(Slav, Barbary, Black African).

After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hegemony of East Mediterranean turned over to the West Europe from the Ottomans who were then faced to such problems as internal power conflicts and uprisings in peripheral provinces of the empire. As new maritime superpowers, Britain and France now started their colonial expansion occupying Egypt, North Africa and Middle East. Finally with the collapse of the Ottoman Empire, the East Mediterranean as a Islamic sea lost many parts of her glory and prosperity enjoyed since the 7th century.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East Mediterranean still surrounded by Islamic region- Turkey, Syria, Lebanon, Palestine, Egypt prepare new take-off to recapture her heyday.

[Key Word : The East Mediterranean, Ottoman Empire]

I. 서론

동부 지중해는 오랫동안 이슬람의 바다였다. 7세기 이후 아랍의 바다였다가 15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터키의 바다로 민족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슬람 시대 동부 지중해의 번성은 크게 두 축이었다. 하나는 매년 많은 무슬림들이 동부 지중해 해로를 통해 메카 순례를 행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곡물이 이 길을 따라 이스

탄불로 운반되었기 때문이었다(Goodwin 1998: 121). 그러나 역시 동부 지중해는 오스만 터키와 함께 비로소 활발한 교역과 문화전파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게 된다.

오스만제국(1299-1923)은 부르사(Bursa)라는 한 작은 도시로부터 출발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광대하고 오랜 제국을 이룩했다. 부르사는 마르마라해와 에게해, 동부 지중해로 통하는 차나칼레(Canakkale) 해협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크와 직물의 도시이다. 육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의 비단과 직물을 동부 지중해를 통해 베네치아와 제노아는 물론 유럽 각국에 전해줌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당시 유럽의 풍부한 정보를 축적해 갈 수 있었다. 자그만 오스만 공국이 유럽과의 당당한 경쟁과 정복을 통해 세계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커다란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동방과 동부 지중해를 잇는 육해상 교역의 활성화와 그 보호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스만 터키와 유럽 간의 동부 지중해를 둘러싸고 일어난 교역과 전쟁의 역사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물론 15-19세기 유럽의 해양사를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셀주크 투르크 시대

터키가 지중해를 영토의 경계를 삼게 된 것은 셀주크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흉노, 돌궐, 위구르, 셀주크 국가를 차례로 형성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영역에서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당시 세계의 가장 우수한 과학과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1071년의 한 사건은 세계사를 뒤바꾼 의미를 갖고 있다. 셀주크 왕 알프 아르슬란이 비잔틴의 영역이었던 아나톨리아의 말라즈기르트(Malazgirt) 전투에서 비잔틴 황제를 생포하는 대승을 거두고 동부 지중해로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셀주크는 중국과 인도의 육로와 동부 지중해를 잇는 실크로드와 향료길 무역을 보호하면서 중개와 교역을 통한 막대한 국가수입을 증대시켰다. 셀주크

의 강성과 부의 원천이 바로 육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중개무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주크 통치자들의 정책 기본은 육상과 동부 지중해의 교역로를 방어하고 교역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었다. 셀주크 왕 알라딘 케이쿠바드 재위기에 지중해 연안의 알라이예(Alaiye)와 흑해 연안의 시노프(Sinop)에 첫 조선소가 세워졌다(Ihsanoglu, 1994:362).

육해상 교역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라만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행편의를 위해 20-30km마다 대상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카라반 사라이를 건설했다. 이곳에서는 3일간의 무료숙식이 제공되었고, 순찰대의 감시를 받는 견고한 교역품 창고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각종 교역정보와 자료의 교환이 가능했다. 더욱이 해적이나 도적들로부터 교역품이 강탈당한 경우에 국고에서 이를 보조해주는 일종의 보험제도와 신용대출과 같은 금융편의도 제공되었다. 셀주크의 수표사용과 보험과 같은 금융제도는 곧 바로 동부 지중해 교역을 통해 중부 유럽에까지 소개되었다.

셀주크 투르크의 중국-인도-동부 지중해를 연결하는 국제무역의 번성은 동시에 농산물 생산 증대, 제조업과 광산개발의 활성화와 같은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었다. 13세기부터 앙고라(앙카라를 의미) 염소의 털이 모자나 의복의 제조를 위해 영국, 프랑스 등지로 수출되었고, 카펫의 생산과 수출도 증대되었다. 육상로의 거점인 코냐, 카이세르, 시바스, 에르주룸 등의 도시인구는 각각 10만을 넘었고, 해상교역 도시인 안탈리아, 시노프 등지에서는 여관이나 기독교 교회는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유대인들의 무역센터와 영사관이 개설되었다. 그러한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모스크, 마드라사(학교), 병원, 카라반 사라이 등이 곳곳에 설립되어, 여행객과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 복지의 기능을 갖추었다.

국제 교역의 발달은 셀주크조 내에서 무역, 제조업, 공예업의 신장을 가능케 했다. 특히, 도시의 자영 제조업자들은 론자(Lonja)라는 동업자 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론자는 후일 종교, 경제

적 성격을 띤 강력한 이익 집단인 아히(Akhi, 형제)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일종의 동업자 협회인 아히 조직은 급속히 자본을 증식하여, 무슬림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이나 기독교 상인 조직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창설되었다. 무슬림 권익 보호와 상업연대의 의미를 지닌 종교, 경제, 문화적인 동업자 결사체인 아히 조직은 투르크 제조업자들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9~12세기 사이 세계 전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Ⅲ. 비잔틴의 에게 해와 동부 지중해 진출과 해적들의 전성기

콘스탄티노플에 도읍한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천 년 동안 지중해 질서의 모루로 남았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의 흥기와 침략으로 비잔틴 제국은 위축되었고, 결정적으로 유럽 십자군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의 침략과 약탈은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특히 비잔틴 해군의 붕괴는 국가의 약화를 가져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비잔틴은 오랫동안 이탈리아 선원들을 용병으로 채용해 왔다. 12세기말부터 베네치아와 군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이탈리아 선원들의 충원이 중지되고 기존 선원들이 체포되자 비잔틴은 급격히 쇠퇴해 갔다. 비잔틴의 통제력 상실로 에게 해와 동부 지중해는 해적들의 주무대로 변모해 버렸다.

해적들은 아나니아(현재 남서부 터키의 쿠사다시)나 남부 그리스의 메넴바시아와 같은 본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크레타와 에게 해의 작은 섬들을 근거지로 사용했다. 베네치아 정부가 120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길에 해적기지를 습격했지만, 해적소탕에는 실패했다. 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출신의 해적들은 코르푸, 잔테, 이타카, 케팔로니아 섬 등을 기지로 이용하다가, 이들 섬이 14세기말 베네치아에 병합될 때까지 활동했다.

13세기에 들어 동부 지중해의 보루였던 비잔틴 제국의 붕괴는 곧 바로 해적의 전성기로 이어졌다. 특히 1260년대에 들어 비잔틴 황제와 귀족들은 앞다투어 해적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수입을 늘리고 비잔틴 해군을 재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대부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제노아 출신들이 이 코르세어¹⁾ 해적들은 이탈리아 선박을 공격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황제를 섬기던 해적 조반디 데 로 카보는 해군사령관으로 중용되었고, 1278년에는 로도스의 군주가 되었다.

이탈리아 출신 해적들의 전성시대는 14세기 오스만 제국의 해군력이 증가하고 서서히 동부 지중해로 진출하자 그 기세가 꺾였다. 약화된 비잔틴 해군을 대신하여 오스만 제국의 전함들이 에게 해와 동부 지중해를 지배하여 중세 이탈리아 해적들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예외라면 카탈로니아 해적으로 알려진 집단인데, 이들은 아테네 주변에 기지를 두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룩한 스페인 용병들이다. 그들도 결국에는 이슬람 코르세어에 동화되었다(킨스텀, 2002:54-56).

IV. 오스만 제국 시대의 동부 지중해

오랜 유목적 전통에 젖어있던 오스만 제국의 형성기에 군주들은 아직 바다의 중요성과 해상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제국의 초반부터 부분적인 조선소가 건설되고, 1390년 이을드름 베야지트(Yildirim Beyazit) 술탄 시대에 차나칼레(다다넬스) 해협이 겔리볼루(Gelibolu)에 조선소와 해군기지가 건설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시 에게해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베네치아나 제노아 왕국의 경

1) 코르세어는 프랑스어 라쿠르스(la course)에서 유래했지만, 주로 지중해에서 활동한 선원과 해적들에게 사용된 명칭이었다. 이들의 주요집단은 북아프리카 해안의 베르베르인들이었다. 유럽인들은 이들을 해적으로 간주했지만, 이 무슬림 코르세어들은 자신들을 정당한 선원으로 자부심을 가졌으며, 오스만 당국과 협조하면서 종교적 적들과 싸웠다.(해적의 역사:19)

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콘스탄티노플 공략 이전까지 많은 해전에서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Goodwin, 1998: 121/Ihsanoglu, 1994:362).

동서교역과 육해상 실크로드라는 전략적 요충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서구의 해상세력이 희망봉을 돌아 독자적인 동방무역루트를 확보한 뒤에도 서방 무역상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역대상국이었다. 무엇보다 16세까지도 동아시아의 물품이 오스만 제국 영토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교역로가 갖는 물량과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동부 지중해 산물의 거래로 인한 유럽상인들의 이익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베네치아나 제노아 같은 무역 해상왕국들은 오스만 제국이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비잔틴과 셀주크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아나톨리아는 물론 흑해에서도 교역을 계속해 왔다. 심지어 아나톨리아와 이스탄불의 갈라타 지구에 식민지를 두기도 했다.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함께, 최초로 1352년 제노아에게, 이어 베네치아에게 오스만 영토에서의 교역권을 인정해 주었다. 정복자 파티 술탄 메흐메드 2세는 1479년 베네치아와 맺은 협정에서 트라브존과 케페에서의 무역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 상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력은 그곳을 거점으로 동부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제노아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오스만의 비잔틴 공략시 중립을 선언하고 실제로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에 여러 가지로 협력하였지만, 결국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크림 반도와 트라브존의 해상거점에 설치한 합자회사와 기반시설들이 모두 봉쇄되었다. 그 자리를 오스만 해군이 장악하였다. 그 후 제노아 상권은 동부 지중해를 포기하고 스페인으로 옮겨가면서 콜럼버스라는 제노아 선원을 스페인에 바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Goodwin 1998: 121-122). 이로써 1774년 퀴추 카이나르자(Kucuk Kaynarca) 조약이 성립될 때까지 흑해에는 외국인 선박들의 출입이 불허되었다. 그렇지만 재빨리 오스만 궁정과 협력하여 공생의 길을 찾았던 베네치아의 상황은 달랐다.

4.1 동부 지중해 장악을 위한 오스만-베네치아 격돌

오스만의 콘스탄티노플 점령 이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오스만에 대한 유럽 십자군 결성이 본격화되었다. 이 때, 오스만은 지중해의 해상 왕국인 베네치아와 연대하여 유럽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했다. 동방 무역으로 번성한 베네치아는 교역로의 새로운 주인인 오스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희망하였고, 오스만으로서도 해상 왕국인 베네치아 공략에 필요한 해군력의 약화를 인식하고 공략보다는 공존을 모색했다.

그러나 오스만의 발칸 반도 및 동지중해에서의 급속한 팽창 정책은 베네치아를 위협했고, 오스만의 해군력도 꾸준히 증강되었다. 더욱이 베네치아는 오스만의 팽창에 대한 돌파구로서 아나톨리아 동부와 남부 지중해의 반 오스만 세력인 악코윤루(Ak-Koyunlu, 白羊)조의 통치자 우준하산(Uzun Hasan)과 동맹을 맺고, 카라만 공국의 카심 베이(Kasim Bey)에게 군사 지원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협공하였다. 나아가 오스만의 중요한 교역 항인 이즈미르(Izmir)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오스만 왕국은 1473년 6월, 마흐무드 파샤가 지휘하는 함대로 아테네에 연한 베네치아 교역의 거점인 유보아(Euboea) 섬을 공격했다. 술탄 메흐메트 2세도 육로로 그리스 남부의 테르모필(Thermopylae)령을 넘어 유보아 성채에 도착함으로써, 이 요새는 17일 만에 점령되었다. 다시 아나톨리아로 귀환한 술탄은 베네치아와 연대하여 오스만을 괴롭히던, 같은 이슬람-투르크 왕조인 악코윤루조를 공격하여, 1473년에 오투루크벨리(Otlukbeli)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투루크벨리 전투에서 승리로 아나톨리아의 동맹국을 잃은 베네치아는, 1474년 오스만에 사절단을 파견해 1년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오스만도 흑해 북부의 크림 반도에 대한 해상 원정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1년간의 정전 협정은 충돌 없이 준수되었다.

그러나 정전 협정이 끝나자마자 베네치아의 함대의 아나톨리아 해안

지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만 함대는 베네치아 무역 거점들에 대한 원정을 시작하여, 1477년 하딤 솔레이만 파샤(Hadim Sulaiman Pasha)를 사령관으로 그리스의 코린트(Corinth) 해협 북부 요새인 레판토(Lepanto)를 공격했다. 동시에, 알바니아의 오스만 통치자인 알리 베이(Ali Bey)가 크로아(Kroya)를 공격하였고, 술탄의 친정으로 크로아는 1478년 6월에 정복되었다. 이어 아드리아 해에 연한 알바니아의 스쿠타리(Scutari, 터키명 Ishkodra)를 포위했다. 베네치아로 통하는 입구의 전략 요충지인 스쿠타리는 오스만의 맹포격에 결국 점령되었다. 이로써 오스만과 베네치아 사이에 1479년 1월 26일에 이스탄불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16년간의 양국 격돌을 청산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네치아는 전쟁 중 취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하고, 스쿠타리(이쉬코드라)와 크로아(악차히시르)는 오스만에 귀속된다.

둘째, 양국 전쟁 포로는 상호 교환된다.

셋째, 오스만은 달마티아(Dalmatia), 알바니아 해안, 모리아(Morea) 등 점령한 베네치아 영토를 반환한다.

넷째, 베네치아는 오스만에 연공으로 10,000, 전쟁 배상금으로 100,000 베네치아 금화를 지불한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스탄불에서 베네치아의 상주 영사가 베네치아 인을 감독, 총괄하고, 베네치아 국기를 게양한 모든 선박을 국적선으로 인정하여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이후 베네치아는 계속해서 오스만에 수세로 물리면서 자신들의 오랜 해상권을 하나하나 내어 주었다. 1499년 베네치아 상권의 진주라 할 수 있는 레판토를 잃은 것을 시작으로, 1503년 코론(Coron)과 모돈(Modon), 1540년 누폴리아(Nauplia) 등을 차례차례 오스만 함대에 양도하였다 (Goodwin 1998:122).

4.2 오스만 제국의 동부 지중해 제해권 장악

육상에서 막강한 제국의 힘을 키워가던 오스만 투르크는 16세기에 들

이 해양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파티히 술탄 시대부터 점증해 오던 오스만 해군력은 특히 해적출신 선원들을 등용해서 훈련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함대의 수도 급증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중요한 조선소인 이스탄불의 할리츠(골든혼:Golden Horn) 조선소를 중심으로 선박 종사자만 1800명에 달했다. 그렇지만, 16세기 중반까지 동부 지중해 교역과 군사적 전략 때문에 해군 사령부의 중심은 차나칼레 해협의 켈리블루에 있었다. 해군 총사령관(Kaptan-i Derya)은 거의 총독이나 제상의 신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바르바로사 시대부터는 해군 총사령관이 점령지의 총독을 겸하기도 했다. 한 번 해상원정에 동원되는 주민들의 숫자만도 4500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와 권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해상원정에 동원되는 군사들은 주로 알제리, 튀니지, 트리폴리 등 해상왕국의 주민들이었다 (Ihsanoglu, 1994:39, 365).

16세기에 들어 오스만 터키의 유럽 경쟁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였다. 헝가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두 세력은 다시 해상으로 그들의 대결을 연장하게 된다. 당시 오스만 해군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베네치아 해상력의 쇠퇴로 합스부르크 황제 찰스 5세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독점하려 했다. 그는 제노아 출신 항해사 안드레아 도리아 (Andrea Doria)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여 강력한 제노아 함대의 지원을 획득했다. 오스만 술탄도 1522년, 로도스(Rodhos)에서 그 곳을 점령하고 있던 자선 기사단을 축출하였다.

정치적 갈등과 해상권 장악을 위한 대결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만이 아닌 광대한 제국의 통제하에 있던 다른 지중해 도시들도 활발하게 유럽과의 무역을 계속해 갔다. 그 중에는 다마스쿠스가 지중해의 국제교역로 크게 번성하고 있었다. 1522년에 베네치아에서 다마스쿠스로 여행을 떠났던 한 유대인 상인의 글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다마스쿠스는 아마 볼로냐의 두 배에 달하는 대도시다. 단단한 성채로 둘러싸인 이 도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온갖 제품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베네치아보다도 더 풍부한 것 같다. 특히 실크제조와 거래가 너무나 활발하다. 복잡한 다마스쿠스 인구전체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상인들이다. 얼마 안 되는 자본금만 가져도 무슬림과 베네치아인들로부터도 신용을 얻어 가게를 연다. 자본가들은 값이 쌀 때 물건을 매점매석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 심지어 베네치아 상인들도 그들로부터 용자를 얻어 쓴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월 2%이나, 자본압박이 심할 때는 이자율이 치솟기도 한다. 소액인 경우 저당 없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연 15-18%의 고정 이자로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눈이 머리에 있다”(Lewis 2000:330-331)

그러나 오스만으로서 동부 아나톨리아의 정치적 위협세력때문에 지중해의 통제에 관심을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그 틈을 탄 찰스 황제는 1530년에 말타(Malta)를, 그리고 1525년에 튀니스(Tunis)를 점령했다. 이어 도리아 제독은 모리아(Morea, Peloponnese)의 주요 항구들을 지배하고, 이스탄불과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해상 통신로인 오스만 해안에 대한 약탈과 침공을 강행했다.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스만 술탄 술탄 이만은 1533년, 바르바로사 하이레틴(Barbarossa Hayrettin)을 해군 총사령관(Kaptan-i Derya)으로 임명하고, 지중해 제해권 확보에 나섰다.

4.3 해군 제독 바르바로사의 등장

바르바로사(‘붉은 수영’이란 의미)²⁾는 원래 서부 지중해의 해적 두목

2) 바르바로사는 1470년경 그리스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오스만의 은퇴한 병사였는데, 에게 해 레스보스 섬의 시골 여자와 결혼했다. 15세기에 레스보스 섬은 그리스와 이슬람 해적의 은신처였다. 또한 지중해의 문화와 종교가 자유롭게 혼합한 국제적인 항구이다. 15세기말에 아루지 형제는 레스보스 섬에 기지를 둔 코르세어로서 에게 해의 선박을 공격했다. 1505년경, 바르바로사는 갤리선을 서부 지중해로 이동시켰고, 튀니스의 술탄은 그에게 튀니스의 수도에서 322km 떨어진 제르바 섬 항구를 사용하게 했다. 바르바로사 갤리선의 세력은 곧

으로 활약하다가 1518년에 오스만 해군에 소속되어, 중서부 지중해에서 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1529년에는 알제리를 점령하여 그 곳의 지역사령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바르바로사의 활약에 의해 알제리는 오스만 제국 영토에 온전히 편입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알제리에서는 통치권 향방을 가늠하는 후투바(금요일예배 설교)³⁾에 오스만 술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오스만은 알제리를 병합하여 오스만의 지중해 함대의 병참 기지로 삼고, 합스부르크의 공격에 대비해 지상군을 파견했다.

특히 35척의 검은 갤리선 함대를 자랑하던 바르바로사는 1520-1529년 사이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1492년), 인종 청소와 강제추방의 위협에 시달리던 70,000명의 무슬림들은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데려와 분산 정착시키기도 했다(Turan, 1991:66).

한 때 84척의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바르바로사는 1537년에 이탈리아 남부를 공격했다. 당초 계획은 프랑스와 동맹하여 남북에서 이탈리아를 점령하는 것이었으나, 이교도와 연합한다는 유럽의 반응을 의식한 프랑스가 약속을 파기하므로써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로도스의 점령과 이집트의 홍해로를 확보한 오스만제국의 동부 지중해 제해권 장악을 위해 유일한 걸림돌은 키프러스였다. 전략적 요충지를 수호하려는 합스부르크의 도리아제독도 즉시 유럽 연합 함대를 지휘하며 오스만 함대를 공격했다. 양대 해상 세력의 충돌은 알바니아 해안의 프레베자(Preveza)에서 운명의 일전으로 연결되었다. 1538년 9월 28일의 프레베자 해전에

멀리 북쪽, 리구아 해까지 뻗었다. 바르바로사의 놀라운 전술과 해상력은 오스만 왕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 최고 해군 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때부터 그를 하이레딘('신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1547년에 사망할 때까지 바르바로사는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지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 3) 이슬람 세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통치자의 이름을 이슬람의 합동 예배인 주마 예배 설교에서 언급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주마 설교를 후투바라 부른다. 후투바에서 언급되는 통치자의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는 정권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된다.

서 오스만 함대가 유럽 연합 함대를 격퇴함으로써 오스만의 지중해 해상권은 확립되었다. 이어 베네치아도 에게 해의 마지막 보루였던 모리아와 달마티아를 오스만에 양도함으로써, 동지중해에서도 오스만의 해상우위가 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30년간이나 지속되었다.

간헐적인 저항을 시도하던 찰스 5세는 1541년에 알제리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합스부르크의 계속되는 도전에 바르바로사는 1543년 프랑스와 협력하여 합스부르크가 영토인 니스(Nice)를 점령했다. 또,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툴롱(Toulon)항을 오스만 해군 기지로 제공하며, 찰스 5세의 프랑스 침공을 견제하였다. 지중해를 오스만의 내해로 바꾼 바르바로사는 니스 점령 후 1546년에 이스탄불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사후 오스만 함대는 투르구트 레이스(Turgut Reis) 제독에 의해 지휘되었다. 그는 합스부르크의 찰스 5세가 말타 기사단에게 통치를 맡긴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1551년에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말타의 기독교 기사단은 합스부르크가 찰스 5세의 보호를 받으며 기독교 코르세어로 활동했고, 섬의 요새를 통해 지나가는 이슬람 선박을 약탈했다. 그러나 투르구트 레이스에 의해 말타 해안이 결국 평정되었다. 그러나 로도스 점령 후 말타(Malta)에 정착한 자선 기사단이 오스만 함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해, 투르구트가 전사하고 오스만 함대가 퇴각함으로써, 지중해에서의 오스만 우위가 쇠퇴하는 기점이 되었다(Goodwin 1998:122-123/터키사 1993:339-341/Ihsanoglu, 1994:363).

4.4 오스만 해군력의 쇠퇴

1570년경부터 오스만제국의 주된 관심은 바다보다는 동부전선이었다. 가장 중요한 오스만제국의 위협세력은 이란의 사파비왕조였다. 당시 동부 지중해 문제에서 오스만제국의 관심은 베네치아의 수중에 있는 키프러스였다. 키프러스는 당시 이스탄불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해상교역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키프러스의 두 중심도시 레프코세(Lefkose)와 마고사(Magosa)를 점령하고, 키프러스 공국을 세

왔다(1570-1571). 이 사건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의 해상 십자군 편성을 자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571년 오스만 함대는 레판토(Lepanto) 해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패배를 맞는다. 레판토 해전의 패배는 흔히 서구역사에서 1538년 이후 유지해 온 동부 지중해에서 오스만 해군의 주도권을 빼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레판토의 패전이 곧 바로 오스만 해군력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았다. 바로 다음 해 반격을 개시한 오스만 함대는 더욱 강화된 군사력으로 17세기까지 지중해에 대한 우위권을 지속해 나갔다. 1574년에는 북아프리카 해상교역의 교두보인 튀니지를 합스부르크가로부터 탈환함으로써 스페인의 지중해 진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결국 1492년 이슬람왕조인 그라나다를 축출하고 기세를 올리던 콩키스타(정복정책:Conquista)가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어 오스만 함대는 1578년 포르투갈로부터 페즈(Fez)를, 1669년에는 베네치아로부터 크레타를 무력으로 점령했다(터키사 1993:366/Ihsanoglu, 1994:42).

V. 동부 지중해 교역에서 유럽의 확산

5.1 유럽과 오스만의 지중해 교역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격돌과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상호이익의 합치라는 국제교역의 속성상 유럽과 오스만 제국간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거래는 계속되었다. 16세기까지 동방과의 지중해 무역을 거의 독점하던 베네치아와 제노아가 퇴조하고, 16세기 중반이후 당시 유럽의 강자인 프랑스(1536년)와 영국(1580년)이 오스만 당국의 허가를 받고 오스만 영토에서 자국 국기를 내걸고 본격적인 무역활동에 가담했다. 당시 동아시아, 인도, 이란, 아라비아, 중동 등지에서 물려드는 풍부하고 값싼 물자의 공급지로서 오스만 터키는 유럽상인들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었다. 이런 상황은 오스만 재정에 절대적인 보탬이 되었다. 이를 위해 오스만 정부는 외국인들의 무역과 투자환경에 매우 긍

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업적이고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 ① 무역선의 정박과 통행, 물품 보관 등에 대한 보호
- ② 일정액의 관세 이외에 다른 공적 부담의 경감
- ③ 외국인의 분쟁은 해당 법률과 자체적 영사권 관할로 해결
- ④ 필요한 오스만 시민들의 자유로운 충원

5.2 수출품과 금지품목

오스만 제국은 건국 초기부터 민생과 직결된 식품과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금지와 통제제도를 채택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높은 값으로 수입을 희망하는 외국으로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오스만 제국 초기부터 수출에 민감한 저항을 보인 품목은 곡물이었다. 이을드름 베이 지트 술탄의 표현대로 식량이 유출되어 적을 살찌게 하는 균량미로 전용되는 것은 이적행위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런 정서 때문에 베네치아와 제노아 상인들에게도 곡물수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밀수는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원들이 관리와 짜고 곡물의 유출이 심해지자, 오스만 당국은 술탄령(emr-i sherif)으로 이를 경고하기도 했다.

곡물에 이어 수출이 금지된 두 번째 주요한 품목은 산업용 원자재였다. 면화, 면사, 피혁, 밀랍, 견사, 모사, 모헤어사, 생사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되었다. 원자재 수출 금지는 곡물만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생산량이 풍부하거나 원자재가 국내생산을 위한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면화와 면사 수출이 이루어졌고, 술탄 셀림 2세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면화와 면사는 물론 피혁수출을, 1673년에는 밀랍과 원피(가죽)를 위한 협정이 각각 체결되었다. 1675년에는 영국에 양모와 모헤어사가 수출되었다. 특히 같은 해에는 생산량이 초과된 무화과와 포도가 두 척의 선박에 실려 예외적

으로 영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금지정책은 서양에 대한 오스만제국의 태도가 현저히 악화되는 1838년의 협정으로 완전히 철폐되었다.(Ihsanoglu, 1994:579-581)

5.3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중해 등장

17세기에 들어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상인들의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중해 진출이 두드러졌다. 특히 부드럽고 가벼운 모직 원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였다. 특히 네덜란드가 동아시아 시장에 특별한 관심을 둔 이후, 17세기말까지 중동의 레반트 지역의 시장은 거의 영국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1606년 토마스 셀리라는 한 상인이 보낸 보고서에는 당시 영국과 오스만 제국간의 거래를 잘 엿볼 수 있다.

“영국에서 터키로 보낸 물품들은 주식, 납, 구리, 섬유, 유황, 화약, 소총, 무기, 케이블, 강철 등인데, 특히 총포류의 독점적 수출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영국은 콘스탄티노플에 3개의 총포류 가게를 열어 높은 값으로 많은 양을 판매하였다”(Lewis 2000:330)

그러나, 1670년 이후 프랑스 영사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점유 노력의 결과, 동부 지중해 무역에서 프랑스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이리하여 18세기 내내 프랑스는 영국과 경쟁하면서 오스만 영토에서의 시장점유를 넓혀나갔다. 그 결과, 1660년대 레반트 지역 무역총액에서 영국-네덜란드의 8분의 1에 불과하던 프랑스 무역량은 1780년에 이르러, 양국 무역 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178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자 동부 지중해에서의 무역경쟁에서 프랑스가 압도적인 우위로 돌아섰다.(Gowan, 1981:21-23). 이 시기에 교역선은 프랑스 선적이 주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상선은 당시 서양에 비해 규모가 작고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내해나 연안무역에 종사하였다. 1780년경 동부 지중해 여러 항구에 소속된 프랑스 상선의 수는 150척에 달했다. 이 선박들은 동부 지중해와 아프리카 해안사이를 왕래하며

아프리카와 오스만 물자를 유럽으로 실어 날랐다.(Ihsanoglu, 1994:596)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동부 지중해에서 영국의 무역우위는 다시 회복되었다. 급증하는 원자재 공급처로서, 나아가 상품으로 다시 내다 파는 시장으로서 오스만 제국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한 오스만 정부의 조치가 따랐지만, 이미 영국의 침투력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시기에 동부 지중해와 에게해 무역은 전에 없는 번성을 누렸다. 17세기초부터 무역항으로 각광 받아오던 네 도시는 이즈미르, 알렉산드리아, 사이다, 알레포였다. 그 중 이즈미르가 최대 교역항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는 주로 상품이나 사치품 중심의 교역이 이루어진 반면, 이즈미르 항에서는 이란산 비단에서 18세기 후반부터 면화, 면사, 면직물, 건과일이 교역의 주류를 이루었다.

결국 16세기 이후부터 동부 지중해로 진출했던 영국은 18세기말 이후 독점적 교역권을 확보하며 19세기에 들어 오스만 정부와의 외교와 협상 협박을 통해 자유로운 무역시장 환경을 조성해 갔다. 동부 지중해를 둘러싼 교역권 전쟁은 영국의 승리와 오스만 와해로 이어지게 된다.

VI. 동부 지중해의 교역품

6.1 향료와 설탕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중동지역에서 해상을 통해 유럽사회에 전해진 것으로 기름을 함유한 작물이 매우 중요하다. 식용유나 조명용 기름은 물론 여러 종류의 방향유, 특히 비누로 사용되는 기름이었다. 대표적인 기름 함유 식물은 올리브로, 중동 일부지역과 북아프리카가 주산지이다. 기름은 다양한 종류의 껍에서 추출되었다. 향료는 중동의 여러 곳에서 재배되었지만, 많은 양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었다. 향료 역시 중동이 서유럽으로 수출한 품목 중에 주요한 몫을 차지

했다. 그 중에 남부 예멘과 오만의 도파르에서 생산되는 유향의 이동은 동부지중해의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다. 유향은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세례의식이나 향불로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의 궁정과 가정에서의 수요 때문에 로마 시대부터 선호되던 중요한 교역물품이었다. 향료무역은 서유럽 해상세력이 중동을 우회하여 아시아로 향하는 직접적인 해상로를 개척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의 동부지중해 교역망을 통해 유럽시장에 전달되었다. 더욱이 유향과 더불어 각종 향신료 등은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의 더운 날씨에 육류를 보존하기 위한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아랍-이슬람 시대에 멀리 동쪽에서 유럽으로 전래된 작물 중 하나는 설탕(sugar), 즉 오늘날 사탕수수였다. 페르시아에서 설탕은 ‘셰케르 (shaker)’와 ‘칸드(qand)’ 등 두 가지로 불렸다. 영어 sugar의 어원이 되었다. 설탕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의료용 이외에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필요한 경우에 음식과 음료는 꿀로 단 맛을 내었다. 이슬람 중세동안 설탕의 경작과 정제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로 전해졌고, 설탕은 유럽 세계로 수출되는 중동-이슬람 세계의 주요 상품이 되었다. 설탕의 재배와 플랜테이션 제도는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스페인으로, 그곳에서 다시 대서양, 결국 신대륙으로 전해졌다.

6.2 감귤과 오렌지

감귤재배는 기이하고 약간 모호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어에서 오렌지는 ‘포르투갈 (Portugal)’이라 불린다. 아랍어로는 ‘bortaqal’ 터키어로는 ‘portakal’인데 아프가니스탄에까지 이르는 거의 모든 동부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통용된다. 당도가 높은 오렌지는 인도와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16세기초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오스만제국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감귤열매는 이슬람이 성립하기 훨씬 전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페르시아어와 탈무드어 자료에서도 식용 시트론(레몬류)인 ‘투룬주 turunju’(히브리어

‘ethrog’ 아랍어 ‘utruja’)와 아름다운 꽃을 가진 작고 쓴맛의 과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과일은 페르시아어로 나랑(narang), 아랍어로 나란(naranj)로 알려졌는데, 장식용이나, 화장용, 그리고 일부 요리용으로는 주로 과즙용이나 양념용으로 사용되었다. 포르투갈과 서구 여러 지역에서 달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 이름의 변형으로 불려졌다. 또한 이 시기에 인도에서 소개된 레몬이 중요하다. 레몬과 라임의 재배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인들은 이 두 과일을 여전히 페르시아-인도식 이름으로 불렀다. 이 두 과일은 분명 무슬림 대상들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다시 십자군과 그들을 동행한 무역상들에 의해 유럽으로 넘어갔다.(루이스, 1997: 169)

6.3 오스만 제국과 커피 해상 교역

커피는 오스만 제국에서 동부 지중해 통로를 통해 유럽사회에 전해진 전형적인 교역품이다. 대부분의 증거에 의하면,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에서 유래되어, 같은 지질대인 남부 예멘의 모카지방에서 그 명성을 떨쳤다. ‘커피(Coffee)’란 이름은 아마 지금도 야생의 커피식물이 자라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카파(Kaffa)지방에서 유래되어 14-15세기 예멘으로 전래되었고, 아랍어 ‘카흐와(qahwa)’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집트 작가에 의하면, 16세기초에 ‘카흐와(qahwa)’라 불리는 음료가 예멘에 소개되어, 수피 수도승들과 다른 사람들이 몰아의 명상 중에 잠을 쫓는데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커피는 전파를 계속하면서, 1511년까지 이미 메카 성지에서 커피 음용이 확인되었고, 메카 순례객이나 상인들을 통해 서쪽의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오스만 중심지로, 그리고 동쪽의 이란으로 퍼져갔다. 이리하여 19세기초까지 커피는 이 지역의 주요 음료가 되었다. 커피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이슬람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금기시된 음주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었고, 커피 하우스가 친교나 정보교류라는 서구의 술집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서구는 양질의 차를 싼 값에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커피는 상당기간동안 오스만 제국의 독점산물이었다(이

슬람:131).

유럽은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하우스의 스타일까지 빠르게 받아들였다. 예멘에서 생산된 커피는 빠른 속도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다. 특히 한 때 고수익을 올리던 향료무역을 빼앗긴 이집트 상인에게, 커피는 유용한 대용품이 되었다.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터키의 제 2 차 비엔나 공략이후, 비엔나에 문을 열었다. 커피하우스는 아르메니아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는데, 이는 터키전선에서 오스트리아를 위한 첩보활동의 댓가로 주어진 특권이였다. 유럽의 커피는 주로 16 세기 이후 이스탄불에 파견된 외교관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고, 오스만 터키를 통한 지중해 교역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터키 커피'로 불려졌다(루이스, 1997:172).

6.4 곡물과 과일

이슬람의 정복은 처음으로 서쪽에서는 유럽으로부터 동쪽의 인도와 중국 접경지대에 이르는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단위를 성립시켰다. 무슬림 군인과 중앙아시아의 여행가, 걸프해에서 인도와 그 동쪽으로 향해 한 무슬림 선원과 상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작물의 발견과 전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이슬람 시대에 이란으로부터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서진한 작물에는 쌀, 수수, 사탕수수, 면화, 수박, 가지, 아티초크, 오렌지, 바나나 등과 다양한 식품, 사료, 섬유식물, 향료와 양념, 그리고 의약품이나 화장용 식물 등이다. 중세 무슬림 여행가들은 놀랄 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물과 그 변종들을 언급하고 있다. 1400년경에 기록된 북아프리카 해안에 대한 한 기사는 65가지 종류의 포도, 36가지 종류의 배, 28가지 종류의 무화과, 그리고 16가지 종류의 살구를 언급하고 있다.

6.5 카펫과 직물

중동 지방의 유럽 수출품목에서 직물이 갖는 중요성은 직물들 이름에

서도 증명된다. 지방이름을 딴 것으로 모술(Mosul)에서 muslin(모슬린, 옥양목), 다마스쿠스에서 damask(단자, 능직)등이 있고, 기술용어로는 카즈(qazz)에서 gauze(거즈, 얇은 천), 무카야르(mukhayyar)에서 mohair(모헤어직), 페르시아어 타프트타(taftah)에서 taffeta(테피터, 호박단) 등이 있다. 수출된 직조물로는 테피스트리 직물, 쿠션, 장식천, 그리고 옷감 등이 있었다. 농민들은 주로 아마와 면화를 공급하였고, 유목민들은 모사(울)와 가죽을 제공해 주었다.

직물은 일반적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용으로 제조되었다. 단지 카펫으로 대표되는 일부 품목만이 국제무역을 위해 제조되었다. 카펫 산지는 특히 오스만 제국의 터키와 페르시아 카펫으로 잘 알려진 이란이었다. 예배용이나 이슬람 사원의 바닥용, 유목생활에 근거한 일반 가정에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카펫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아름다운 색상과 우아한 디자인, 내구성 때문에 카펫은 유럽의 상층사회에서도 크게 선호되면서 카펫은 주요한 대유럽 수출품으로 자리잡았다(이슬람:72).

중동의 전통적인 직물산업은 '티라즈(tiraz)'였다. '티라즈'는 고전 아랍어로 문직(무늬직물)이나 자수를 의미하였는데, 그것을 입거나 선물하는 것은 왕실의 특권이였다. 그 옷감은 통치자 자신이나 영광의 표시로 통치자가 수여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티라즈는 명예와 장식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 때문에 티라즈의 제조는 초기에 철저히 보호된 국가전매산업이 되었다. 티라즈 작업장은 국가소유였고, 그 공장장은 국가 관리였다. 후일 그 산업은 크게 확산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직물산업은 단연 모직이었다. 지중해 해상교역에서 16-18세기 오스만 지역의 가장 유명한 모직은 소프(sof)라 불리는 모헤어 모직이었다. 모헤어 양의 털로 짠 이 소프는 앙카라가 그 중심이었는데, 16세기 후반 소프 직물공장의 숫자만 천여개에 달했다. 소프는 5월이 되면 모헤어 양털을 깎아 실을 짜고, 소프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모직의 주요 판로는 이스탄불, 알레포 같은 오스만 영역내 대도시는 물론 유럽의 주요도시로 팔려나갔다.(Ihsanoglu, 1994:626-627)

6.6 실크와 견직물

지중해를 통한 동서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직물, 특히 실크와 비단 문직과 같은 고가 직물이었다. 로마 후기, 비잔틴, 페르시아시대 및 이슬람 초기에 실크는 교역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요성을 지녔다. 이 때문에 실크의 수입과 후일 실크 제조는 왕실의 독점사업이었다. 실크예복은 종종 주변국가의 어린 군주들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실크 교역은 외교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동방으로부터 실크의 수입은 이처럼 실크가 통과하던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역사에서 주된 테마를 이루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직물은 의심의 여지없이 견직 산업이었다. 견직산업의 중심도시는 부르사를 중심으로 이스탄불, 알레포, 다마스쿠스, 빌레직, 아마스야, 사크즈 등이었다. 실크와 견직물은 가볍고 양은 많지 않았지만 고부가 상품인 사치품 교역이었다. 오스만 제국 내내 실크 시장의 중심지는 초기 수도였던 부르사였다. 셀주크 시대부터 형성된 부르사 실크산업의 원자재는 이란산이 주를 이루었지만, 카스피해 남부 지방에서도 공급되었다. 이미 일한 제국부터 형성되어 있던 실크원사의 교역 루트는 술탄니에 → 에르주룸 → 에르진잔 → 시바스 → 코냐 → 이스탄불이었다.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 루트는 훨씬 유통거리가 줄어들어, 에르주룸 → 에르진잔 → 토카트 → 아마스야 → 부르사로 정착되었다.

부르사에는 제노아 상인들을 위한 실크 거래소가 설립되었고, 유럽 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편의가 제공되었다. 15세기 부르사 실크시장을 장악한 유럽세력은 베네치아, 제노아, 플로렌스 지방의 상인들과 유대인들이었다.

부르사로 몰려드는 이란산 비단 행렬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주로 투르크멘 부족들로부터 말과 낙타를 공급받아 300-400마리의 카라반으로 구성된 교역단은 1회에 약 30톤 가량의 물량을 공급할 정도로 번성

했다. 16세기 후반에는 이란 전체의 연간 비단 생산이 22,000yuk(3388톤)에 달했는데, 그 중 약 3000yuk(462톤)이 부르사 방면(아나톨리아)으로 공급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동시에 견사를 이용한 다양한 견직산업이 부르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6세기초에 부르사에만 1000개 이상의 비단직조공장이 가동되었다고 한다. 점차 견직물 수요와 직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스탄불에까지 확산되어 1564년에 318개의 견직물 직조공장이 이스탄불에 설립되었다(Inalcik, 2000: 363). 이란에서 직접 유럽으로 수출되는 비단에 대해서는 오스만 당국이 일정한 통과세를 부과했다. 오스만-이란 사이에 무역의 중심은 역시 비단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르사에서 발전된 산업은 주로 벨벳과 견사를 이용한 다양한 고급직물이었다. 이란으로부터의 실크 수입초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려된 국책산업이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부르사는 현대 터키의 가장 중요한 실크와 견직물 중심도시로 남아있다. 더욱이 견사를 이용한 실크 카펫을 개발하여 부르사 근교의 헤레케는 세계적인 품질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실크 카펫 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이란과 오스만 제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16세기에 들어 이란의 사파비 왕조와 잦은 전쟁으로 교역로가 차단되고, 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제국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부르사를 중심으로 실크의 중개무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스만은 유럽취향에 맞는 다양한 견직물을 개발하여 수출하였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제품은 세라세(serase)라 불리는 견직물이었다. 직조과정에 금사와 은사를 사용한 최고급 상품이었다. 오스만의 견직물은 16세기경 유럽에서 가장 선호되는 교역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6세기말부터는 유럽상인들이 견직물 대신에 견사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17세기에 들어 베네치아산 견직물이 오스만 내수시장을 장악하면서 오스만의 견직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나아가 19세기부터는 유럽각국이 견사를 제치고 누에고치를 수입하면서 견직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6.7 노예무역

동부 지중해를 통한 교역에 물자만이 교환된 것은 아니었다. 노예가 빼놓을 수 없는 교역의 대상이었다. 고대에서부터 지속되던 장거리 노예 무역은 이슬람 시대에 와서 오히려 발전되었다. 슬픈 역사의 패러독스인 지 이슬람법의 인도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로마시대의 노예공급은 범죄자나 채무자의 노예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노예입양, 자식이나 스스로의 몸을 팔아 노예신분으로 귀속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슬람 세계의 정복시대와 더불어 이슬람법이 적용되면서 근절되고 말았다. 이슬람법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상태는 자유였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시민들은 무슬림이든 다른 허용된 종교에 속하는 사람이든 채무나 범죄 때문에 노예가 될 수 없었다. 무장 반란을 피한 자만이 예외였다. 버려진 아이들도 그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전에는 자유민으로 취급되었다. 노예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해방될 때까지는 노예신분이었다. 자유민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성전(Jihad)에서 포로로 잡힌 이교도들 뿐이었다. 그런 경우에 그들과 그들 가족은 합법적인 전리품이었고, 그들의 재산은 정복자에 귀속되었다. 그렇지만 이슬람 세계 내에서 성인노예들의 자연적 증가에 의한 충원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비이슬람권에서 새롭게 노예화된 이교도를 공급하기 위한 교통로가 개발되었다. 노예 가격, 특히 젊은 여자 노예의 가격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무역은 위험부담을 안고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특히 거세한 젊은 남자 노예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궁정이나 부유한 집안, 그리고 일부 종교기관에서 시중들 내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슬람법은 신체훼손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시들은 이슬람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변경에서 거세된 상태였다.

노예는 주로 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유입되었다. 유럽과 유라시아 스텝, 그리고 아프리카였다. 간간이 인도나 중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온 노예들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들은 미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 영어 단어 'slave'의 어원이 된 중·동부 유럽의 슬라브(Slav)족이 무슬림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노예인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중세에 그들은 주로 서유럽 노예상인이나 중개상을 통해 공급되었다. 동유럽에서는 발칸으로 진출한 오스만 제국이 중간상인들을 차단하고 직접 슬라브 노예들을 획득하였다. 북아프리카 바르바리 해적선에 의한 서유럽 노예의 공급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다. 스페인에서 북아프리카 해안을 거쳐 오스만 궁정으로 유입되는 서유럽 노예는 남녀 모두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적선들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1627년 바르바리들은 아이슬란드에 침략하여 242명의 포로를 알제리의 노예시장에 내다 팔았다. 1631년 6월 20일에는 그들이 아일랜드의 발티모어에 있는 어촌을 습격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동유럽의 타타르 지배자들은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지를 습격해서, 매년 수천 명의 젊은 노예를 이스탄불로 배로 실어 날라 오스만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팔아먹었다.

두 번째 주요한 노예그룹은 유라시아 스텝의 터키인들이었다. 그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흑해 북부에서 중국과 몽골집경에 이르는 지역에서 포로나 매매에 의해 이슬람 세계로 공급되었다. 이들은 중세 이슬람 동부 지방의 백인노예의 주축을 이루었고, 특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터키인 스텝지역의 이슬람화로 터키인 노예공급이 불가능해지자, 그루지아와 시르카스 노예를 공급할 수 있는 카프카스 지역이 새롭게 떠올랐다. 이리하여 남녀 모두 많은 수의 노예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오스만과 페르시아 영토로 수입되었다. 이곳도 결국 19세기초에 러시아의 카프카스 정복으로 폐쇄되고 말았다.

세 번째, 가장 오래 지속된 노예무역은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공급이었다. 흑인 노예는 로마시대, 특히 이집트에서 간간히 등장하였는데, 이집트에서 흑인 노예는 아주 고대시대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기보다는 하나의 예외였다. 흑인노예가 대

량으로 수입된 것은 이슬람 군대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예는 세계의 주된 루트를 통해 유입되었다. 첫째는 동아프리카에서 해로로, 홍해나 걸프해를 통해 아라비아나 이란, 그리고 그 이동으로 향하는 경로이고, 둘째는 수단에서 카라반을 통해 니일강 하류를 따라 이집트에 이르는 경로이고, 셋째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사하라를 가로질러 모로코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국가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공급루트도 열대 아프리카 전역에 유럽의 식민통치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봉쇄되었다. 흑인노예들은 농업, 산업, 교역, 특히 가사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비록 흑인노예들이 이라크의 하수도 프로젝트 공사 같은 농업, 누비아나 사하라의 소금광산과 금광 같은 광산, 또는 일부 제조업 분야에 종사했지만, 중세 이슬람 경제는 고대 세계와는 달리 노예노동력에 주로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놀랍게도 노예무역은 비공식적으로 1950년대까지 아랍국가들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1960년 7월 4일 영국 상원에서 행한 모감경(Viscount Maugham)의 연설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1953년 오만의 부라이미 노예시장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팔려가기 위해 내놓은 노예들은 가격이 폭등하여 남자노예는 £50에서 £150으로, 여자노예는 £150에서 £700까지 거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예멘에서 노예가 법으로 금해진 해는 1962년이였다(Lewis 2000, 339-341).

VII. 결 론

중세 전성기의 이슬람 중동지역의 무역은 부, 규모, 조직 등, 어느 면에서 보나 유럽을 앞질렀다. 판매할 상품이나 구입할 자금력은 물론, 정교하게 조직된 거대한 무역연계망에 있어서도 유럽의 상위에 있었다. 이슬람의 도래가 상업을 근거로 하는 카라반 상인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가진 국제무역에 대한 집착과 위기관리능력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슬람 중동지방의 무역은

한 때 생각된 것처럼, 대항해시대의 도래와 포르투갈인들의 아시아 진출로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상륙한 이후로도 세기 이상이나 오스만을 정점으로 중동무역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더욱이 버나드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오스만 제국의 경제력이 쇠퇴한 이유를 해군력의 미비와 해양에서의 소극적 정책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수긍하기 어렵다. 적어도 16세기까지 지중해는 오스만의 내해로 간주될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과 활발한 해상무역으로 오스만의 주도로 번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동부 지중해는 비잔틴을 이어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장악함으로써 동방의 물자와 사상이 베네치아, 제노아 등을 통해 유럽 내부로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동시에 동부 지중해는 신라와 중국을 출발한 육상 실크로드가 마감되고 다시 해로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로 교역망이 연결되는 중간적 문화 용광로였다. 동방의 진귀한 물품과 문화가 전해지고, 또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상품과 기술이 동방으로 퍼져가는 길목이었다.

그러나 결국, 문화 용광로 동부 지중해의 주도권은 17세기 이후 유럽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오스만 제국의 한계였다. 제국의 달콤한 절정기를 경험하고 권력의 안주에서 오는 역동성과 긴장감의 상실은 내부로부터의 침체와 부패를 부추켰고, 교역과 생산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군부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의 장악과 권력투쟁은 바다와 지중해의 중요성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다. 심지어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전선에서는 본격적인 반 오스만 전쟁이 빈번하게 반복되었다. 지중해 해상무역은 자연히 효율적인 교역 방식을 가진 이탈리아 도시들에게 넘어갔다. 설탕과 거피와 같은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잉여 수출품도 없었다. 동부 지중해 무역에서 주도권 역전과 무역패턴의 전환은 오스만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타격이 되었다. 한편 서유럽의 기술, 재정, 무역의 성장은 서구 무역상들에게 오스만 제국 치하의 중동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훨씬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한 번 벌어진 틈새는 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온갖 외교력과 군사력으로 오스만을 압박하는 서구의 도전으로 다시 좁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제국의 종말로 이어

졌다. 오스만 군대는 세 대륙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오스만 함대는 한동안 지중해를 지배했지만, 유럽은 상인들을 앞세워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오스만 제국의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였다. 이로써 지중해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고대 그리스 이후 예외 없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늠해주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었다.

[주제어 : 동부 지중해, 오스만 제국]

참고문헌

- 이희수 외, 2001, 이슬람:이슬람 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청아
이희수, 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역), 1997, 중동의 역사, 까치
앵거스 퀸스텀, 이종인(역), 2002, 해적의 역사, 가람기획
Goodwin, Jason, 1998, Lords of the Horizons: A History of Ottoman
Empire, A John Macrae Book, New York
Gowan, Bruce Mac, 1981, Economic Life in Ottoman Europe, Taxation,
Trade and the Struggle for Land, 1600-1800,
Cambridge-Sydney.
Ihsanoglu, Ekmelledin(ed.), 1994, Osmanli Devleti ve Medeniyeyi
Tarihi, Istanbul.
Inalcik, Halil, 2000, Ipek: Osmanli Devleti, Islam Ansiklopedisi Vol.22,
Istanbul.
Lewis, Bernard, 2000, A Middle East Mosaic, Random House, New
York.
Turan, Serafettin, 1991, "Barbaros Hayreddin Pasa", Islam
Ansiklopedisi Vol.5, Istanbul.

◆ 이희수

- 소속 및 직위 : 한양대학교 문화 인류학과 교수
- 전 공 : 문화인류학
- 학위취득대학 : 이스탄불대학교
- 연 락 처 : 031-400-5375
lee200@dreamwiz.com

K C I